

야웨를 바라는 자: 이사야 40:27~31 주석

Hope in Yahweh:
Exegetical Study on Isaiah 40:27-31

신득일 교수
Prof. Dr. Deuk-IL Shin

I. 서론 -----	40
1. 저자 -----	40
2. 역사적 배경 -----	42
II. 본문 -----	43
1. 형태와 구조 -----	43
2. 번역 -----	45
III. 본문 해석 -----	46
1. 논쟁을 위한 도입(v27) ---	46
2. 반박(v28-31) -----	48
IV. 결론 -----	54

Abstract

The hypothesis on Deutero-Isaiah, known as an anonymous author who is assumed to have lived in the period of Babylon Exile, is challenged by recent studies. According to the theory, the whole book of Isaiah should be recorded by an author who lived in the period of pre-Exile on the grounds that the book forms a unity in synchronical and diachronical perspective and the linguistic evidence such as the distinction between scriptio plena and scriptio defectiva. As a result, there disappeared an apparent reason to deny that Isaiah wrote this whole book even though a clear-cut record that he did it is not found in the book.

The historical background that Cyrus expanded his power by conquering Mesopotamian countries one by one, must have made the Israelites in Babylon more unstable. In this hopeless situation, the message of this text has a special meaning for them.

This text forms a climax as the last part of five sections (12-17; 18-20; 21-24; 25-26; 27-31). Each one consists of rhetorical questions, grounds and conclusions. Such rhetorical style might have been helpful for hearers to understand the message. The text relatively has a fine form with parallelism and chiasmus though it seems not to be a sophisticatedly intended structure.

Israelite complaint at Yahweh describes that Israel lost true knowledge of God and that their faith was shaking because the grievance was not justifiable. Israelite ignorance about Yahweh and his attribute such as his eternity, omnipotence, omniscience and faithfulness caused the

people to become frustrated. Yahweh revealed himself as a creator of the heavens and the earth. Especially, the motive of creation theologically plays a cardinal role in the lives of the Israelites in Babylon. Isaiah's proclamation of message introducing Yahweh as the creator must be a great challenge to the pagan circumstances: Marduk, the highest god of Babylonian pantheon is not the creator but rather Yahweh is. The only way that the captive can overcome their facing despair is to possess faith in acknowledgement of Yahweh as creator.

The faith in God's creation as primary Christian doctrine functions as an instrument with which they can overwhelm distress in any situation. As a result, those who hope in such a creator will renew their strength and will soar on wings like eagles. Thus, Christian hope is in the name of Yahweh who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신득일, 고신대학 및 동 대학 신학대학원에서 석사학위(M. Div) 동 대학원 신학과 수료(Th. M 과정), 화란 캄펜 신학교 대학원에서 구약학(Th. Drs.)과 남아공 Porchefstroom 대학원에서 구약학 수학(Th. D. Cand). 현재 고신대 신학과 구약학 교수 제직. 저서 및 역서로 「성경히브리서문법」(고신대학교출판부), 「읍기강해」(고신대학교출판부), 「설교학강의」(기독교문선교회), 「성경지리학개론」(기독교문선교회) 외 다수가 있다.

I. 서론

1. 저자

이사야서의 저작에 관한 문제는 현대 신학자들이 폭넓게 논의해 온 주제다. 유대교와 기독교 전통은 이사야 40-66장 부분을 앞부분과 마찬가지로 이사야의 저작으로 본다. 그러나 Döderlein(1775), Lowth(1778) 그리고 Koppe(1780)와 같은 학자들이 등장한 이후 이 부분의 저자는 포로시대의 사람이라는 주장이 폭넓게 받아들여졌다. 그 뒤 약 100년 후 바젤의 B. 돔(1892)은 이 부분을 다시 둘로 나누어서 제2 이사야(40-55)와 제3 이사야(56-66)라고 했는데 제3 이사야는 느헤미야 시대 사람으로 보았다. 이렇게 해서 이사야의 유명한 저작은 '예언 문학의 작은 문고'가 되었다.¹⁾ 특별히 이사야의 기원을 부정하는 이유는 내적인 특성과 관련된다. 즉 이사야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과 고레스의 이름이 나온 것, 언어와 문체, 그리고 이사야 시대와 후반부의 역사적인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을 이사야의 저작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²⁾

그러나 이사야란 이름이 후반부에 나오지 않는다고 이 부분의 저작을 그에게 돌릴 수 없다는 것은 근거가 없어 보인다. 사실 '아웨의 구원'을 뜻하는 그의 이름이 굳이 언급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 부분의 예언의 목적이 '은혜를 통한 구원'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비평가들은 고레스의 이름이 미리 언급된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그렇지만 성경의 예를 보면 그런 경우가 있다. 예로보암 1세 때 한 예언에 이미 요시아란 이름이 나온다(왕상 13:2). 언어와 문체의 경우는 저자의 나이와 환경 그리고 사역의 성격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그의 나이가 아주 많았을 때 예언했을 수도 있다. 그

렇다고 언어의 통일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text{לְאִשְׁרָאֵל} \text{שָׁמַעְתִּי}$ 이란 표현은 전반부에 12번, 후반부에 14번 나오는데 이것은 이사야서 전체를 지배를 지배하는 사상으로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6장) 받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인상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최근의 언어학적 연구 결과는 이사야서는 동시적 그리고 통시적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³⁾ 특히 이사야 40-66장의 연대가 동시적인 분석이 보여주는 언어학적 증거는 포로이전의 시기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다.⁴⁾ 역사적인 간격이 큰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배나 받을 것'(40:2), '오랫동안 고요하며 잠잠하여 참았으나'(42:14)란 표현과 관계있는데 이 표현은 유배의 마지막 시기를 가리킨다. 여기서 우리는 이 글이 역사적 사건을 보고 서술한 것이 아니라 예언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 본문이 다른 기원을 가진 것으로 이해할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사야가 받은 계시를 기록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하기는 어렵다. Ridderbos는 "그가 예언의 영에 의해서 포로시대에 있었다"고 하는데⁵⁾ 이 설명은 불분명하고 '타임머신'을 연상시키는 것 같다. 이사야는 히스기야 후에도 공식 직분을 떠나서 오래 살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왜 므낫세의 이름이 이 책의 초두에 빠져 있는가를 설명해 준다. '제2 이사야'가 자신의 글을 이사야라는 이름으로 출판하도록 했다는 가정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것은 그렇게 큰 작품을 하나의 부록과 같이 보는 것은 성경의 정경론적 특징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말 익명의 저자 '제2 이사야'가 있었다면 그 신분이 밝혀졌을 것이다. 그 메시지가 아웨의 인정받은 대변자의 권위 있는 선포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1. R.N. Whybray, *The Second Isaiah*,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p. 2.

E.J. Young, *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1989, p. 204.

2. Cf. M.A. Buitink-Heijblom, *Wie schreef het boek Jesaja?* in: A.G. Knevel and M.J. Paul (ed.), *Verkenningen in Jesaja*, Kampen: Kok Voorhoeve, 1991, pp. 16-23; Whybray, op.cit., pp. 2ff.

3. Rolf Rendtorff, *The Book of Isaiah: A Complex Unity, Synchronic and Diachronic Reading*, in: Roy F. Melugin & M.A. Sweeney (ed.), *New Vision of Isaiah*, JSOT Suppl. 214,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6, pp. 32-49.

4. M.F. Rooker, *Dating Isaiah 40-66: What Does the Linguistic Evidence Say?*,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58, 1996, pp. 303-312. 저자는 여기서 다윗(דָּוִד)이란 고유명사가 포로이전에는 불완전 철자법(דָּוִד)으로 포로후기에는 완전철자법(דָּוִד)으로 기록하고, '일어나다'(קָם)를 타동사로 쓸 때 포로이전에는 사역형인 히필형을 쓰고, 포로이후에는 작위동사인 피엘형을 썼다는 문법적 차이를 지적했다. 용어선택에 있어서 '화'를 표현할 때 초기 히브리어에서는 קָרָא 나 אָמַר קָרָא 를 썼는데 후기에는 קָרָא 를 칼형으로 썼다고 한다. 그런데 이사야 40-66장에는 이 단어가 쓰이지 않았다. 이 모든 언어학적인 증거가 이 본문이 포로이전 시기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한다.

5. J. Ridderbos, *De profetie Jesaja II*, Korte Verklaring, Kampen: Kok, 1953, p. 16.

선지자의 정체가 밝혀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⁶⁾ 이사야가 두 번째 부분의 저자가 된다는 또 다른 증거는 신약과 쿠파문서와 벤 시락과 스바나, 나훔, 예레미야, 스가라 선지자들이 사용한 용어에 근거한다.⁷⁾ 이런 내용을 고려할 때 이 책의 처음부터 끝장까지 이사야가 썼다는 성경의 분명한 기록이 없어도 이사야가 이 본문의 저자라는 것을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2. 역사적 배경

이사야는 이 본문에서 유다백성들의 구체적인 역사를 제시하지 않지만 그 백성이 일정기간 동안 역류된 것을 말하고 당시 세계사는 아니라 할지라도 고레스와 관련된 것을 언급하고 있다(44:28; 45:1). 세계사는 바벨론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지만 바벨론 포로 생활이 있었다는 성경의 보도만이 주석의 출발점이 된다.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40:2).”란 표현은 포로기의 끝을 가리킨다. 만일 고레스가 주전 539년에 바벨론을 점령했다면, 이때는 연대기적으로 엘람의 Anshan의 봉신이었던 고레스가 메소포타미아(Ecbatana: 550; Lydia: 546)와 동쪽 이란으로 세력을 확장했던 시기인 주전 540년에서 멀지 않다.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김 재위 3년이(단 1:1) 티레의 계산에 의하면 주전 606년 내지 605년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약 70년 동안 머문 셈이 된다.⁹⁾ 포로로서 그들은 이교문화에 속해서 오

래 머무는 사이에 우상숭배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이교도의 공식예배에 참석하지는 않았겠지만 가정별로 개인적으로 이방의 우상숭배와 관계를 가졌을 것이다.¹⁰⁾ 어쨌든 이사야가 우상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고려해 볼 때(40-48) 그들이 받았던 유혹은 심했을 것이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땅에서도 정기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금식했다(56:7; 예 4:16). 포기하지 않고 시온의 성전에 대해서 갈망했다(시 137:4). 그렇지만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불타으로써 그 시대의 다수의 사람들은 희망을 버렸을 것이다. 그들은 다윗의 보좌가 영원히 서리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현실은 그 약속의 내용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들은 약속과 현실간의 긴장 속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웨께서 여전히 역사를 운행하시며 심판으로 자신을 포로 되게 하셨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 순간 바벨론 바깥에서는 고레스의 정복사업을 인하여 권력의 구조가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이 열강들이 충돌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기반을 잃은 백성으로서 아웨의 보호를 기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¹¹⁾ 백성의 위치와 미래는 여전히 불안하고 불투명해 보인다. 백성이 처절할 정도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시대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사야의 메시지는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였다. 즉 아웨만이 살아계신 신이시요, 백성들 가운데서 활동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다.

II. 본문

1. 형태와 구조

27-31절이 하나의 독립된 단위로 보기가 아니면 그 부분이 이사야 40장의 다른 부분과 구조적으로 관련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다양하게 논의되었다. A. Schoor는 12-26절 부분을 원인과 결과라는 관점에서 완벽한 대칭 구조

6. E.J. Young, op.cit., p. 209.

7. 신약에 이사야서를 이사야의 이름으로 21번 인용했다. 그러나 이것이 이사야의 저작성을 증명하는 절대적 근거가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사야서를 당시 통용되던 명칭으로 사용하셨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해리슨은 쿠파 사본에서 이사야 39장 끝 부분과 40장 사이에 아무런 간격이 없다고 했고(p. 787), 참고로 시락은 “이사야가 사건의 종말이 도래하기 전에 종말의 도래를 보면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있었다고 했다. Cf. R.K. Harriso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1991, p. 792.

8. Cf. Y. Kaufmann, *The Babylonian Captivity and Deutero-Isaiah: History of the Religion of Israel*, Vol. IV, New York: Union of American Hebrew Congregations, 1970, pp. 62f.

9. Edwin R. Thiele, *A Chronology of the Hebrew Kings*,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1981, p. 75.

10. Ibid., pp. 37f.

11. Cf. J. Bright, *A History of Israel*, London: SCM Press, 1991, pp. 347-377.

로 제시했다.¹²⁾ J. Watts는 10-31절의 구조를 활모양으로 확대해서 설명했다: A (10-11), B(12-14), C(15), D(16-17), 중심부(18-20), D' (21-22), C' (23-24), B' (25-27), A' (28-31).¹³⁾ 이 구조는 대단히 정교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구조가 그 내용과 잘 맞지 않는 것도 있다. 중심부(18-20)라는 것은 순전히 구조에서 나온 것이지 내용상 그렇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 40:12-31절은 형태상 하나의 단위를 이루고 있다고 본다. 이 부분은 의문문으로 시작하는 다섯 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었다: 12-17; 18-20; 21-24; 25-26; 27-31. 마지막 단락은 앞의 네 단락과 함께 수사적인 기법을 쓸 뿐만 아니라 대단히 논증적이다. 이 수사법은 듣는 자들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각 단락은 수사적 질문, 근거, 결론으로 구성된 병행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¹⁴⁾ 특히 이 단락들 가운데 처음 네부분은 마지막 논쟁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 마지막 다섯째 부분(27-31)은 12-31절의 절정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첫 네 단락은 하나님의 불가해성과 유일하심, 그리고 창조주 되심과 역사의 주관자임을 언급하는데 비해 다섯째 부분은 피곤하고 지친 자기 백성에게 새 힘을 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

27절에서 언어사용에 변화가 나타나는데 앞 단락에서(18, 21, 25, 26절) 대상을 2인칭 복수로 쓰던 것을 이 절에서는 동사가 2인칭 단수로 쓰였다(ךָ וְאַתָּה וְאַתָּה). Schoors 와 Graffy는 2인칭동사의 변화 자체가 그 단락의 통일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¹⁵⁾ 그러나 그런 문법상의 변화는 내용상 그 백성의 조상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관련된 것이지 단락의 통일성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야곱' 과 '이스라엘' 의 결합된 형태는 자주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대목에서 쓰인다(41:8, 14; 43:1, 22; 44:1, 21; 48:12). 그래서 27절은 하나의 독립된 문단의 훌륭한 도입이 될 뿐만 아니라

27-31절도 전체 논쟁을 포함하는 하나의 단락을 이룬다. 사실 이 본문에서 만족할 만한 문학적 구조를 찾기가 쉽지 않지만 내용에 근거해서 잠정적인 구조를 아래와 같이 만들어 볼 수 있겠다.

- 1) 논쟁을 위한 도입(27)
 - 병행구조 (a, b)
 - 대칭구조 (c, d)
- 2) 반박(28-31)
 - 가. 반박의 근거: 야웨는 누구신가? (28-29)
 - 병행구조(28 a, b)
 - 나. 절정: 야웨를 바라는 자(30-31)
 - 대칭구조(31 c, d)

이 구조는 번역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 예언의 부분은 전체적으로 정교한 구조를 이루지는 않지만 비교적 단어와 문장의 병행법으로 배열된 수준 높은 문학적 차원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러나 모든 문장이 분명한 하나의 구조에 맞지는 않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의도적으로 정교하게 편집한 결과로 형성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번역

27. a. 야곱아, 어찌하여 말하고
 - b.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이르기를
 - c. “나의 길은 야웨께로부터 숨겨졌으며
 - d. 나의 의는 내 하나님을 비껴가는고” 라고 하는가?
28. a. 너는 모르느냐?
 - b.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야웨는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을 창조하신 분,

12. A. Schoor, I am God your Saviour: A From-Critical Study of the Main Genres in Isaiah XL-LV, SVT 24, 1973, p. 259.

13. John D.W. Watts, *Isaiah* 34-66, World Biblical Commentary, Waco, Texas: Word Books, 1987, pp. 88-89.

14. B.D. Naidoff, The Rhetoric of Encouragement in Isaiah 40:12-31,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93, 1981, p. 68.

15. Schoors, op.cit., p. 259; Adrian, Graffy, A Prophet Confronts his People, *analecta biblica* 104, 1984, p. 83.

그 분은 피곤치 아니하며, 지치지 아니하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것을.

29. a. 그 분은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b. 힘없는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자라.

30. a. 청년도 피곤하여 지치며

b. 장정이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

31. 그러나 아웨를 바리는 자들은 힘을 새롭게 하리라

그들은 독수리와 같이 날개로 올라갈 것이다.

a. 그들은 달려가도, 지치지 않을 것이요

b. 그들은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III. 본문 해석

1. 논쟁을 위한 도입(27)

“아굽아, 어찌하여 말하고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길은 아웨께로부터 숨겨졌으며 내 의는 내 하나님을 비껴가는고’ 라고 하는가?” 첫 부분의 의문문(a, b)은 병행법을 사용하여 하나의 의미를 두 문장으로 강조하고 있다. “어찌하여”(אֵיךְ?)란 말은 주로 책망하는 내용을 이끌기 위해서 쓰인다. 그래서 어떤 정보에 대해서 놀라움으로 물어보는데 더 많이 쓰이는 אֵיךְ와 차이가 있다.¹⁶⁾ 이 절에서 부르는 호칭인 “아굽-이스라엘”이란 표현은 이 책에서 처음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그 공동체의 불만을 인용하면서 쓰였다. 이 호칭은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여기서 선지자는 그런 개인적인 이름을 부름으로써 긴밀한 관계를 보여준다. 이 호칭은 아굽이 고향을 떠나 먼 나라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것을 고려하면 바벨론 땅에서 압제당하는 백성에게 어울리는 표현이

다.¹⁷⁾ 아굽의 자손들이 족장의 두 가지 이름으로 묘사되었다. 이것은 아굽이란 이름에서 나라의 개념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 것같이 들리고, 반면에 이스라엘이란 이름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세워질 한 나라를 시사하고 하는 것 같다. 이 호칭은 Beuken의 말대로 역사적 현실과 부름 그리고 약속과 성취간의 긴장을 구체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¹⁸⁾ 비록 과거는 죄로 물들고 나라는 망하였지만 그 백성을 여전히 “아굽-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래서 ‘아굽아!’ 라는 호칭 자체가 희망의 시작을 의미하고¹⁹⁾ 그들의 원망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절의 후반부에 인용된 백성의 불만(c, d)은 한글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히브리어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인 אֱלֹהִים, יהוה와 “아굽-이스라엘”과 병행을 이루고 있는 대칭구조로 구성되었다(מֵאֲלֹהֵי מִשְׁפָּטִי ‘עֲבוֹרָה’ מֵאֲלֹהֵי מִיְהוָה וְנִסְתַּרְהָ דַרְכֵי מִיְהוָה: a’, b’, c’ and c, b, a). 본문의 형식과 내용을 따라서 “길”(דֶּרֶךְ)과 “의”(מִשְׁפָּט)는 동사 ‘감추다’, ‘건너다’(עָבַר, סָתַר)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고 해석해야 한다. “나의 길”(דֶּרֶךְִי)이란 여기서는 포로로서 겪은 경험과 고달픈 인생행로를 의미한다. “숨기다”(סָתַר)란 말은 ‘시아나 지각에서 벗어나다’란 뜻인데, ‘하나님의 얼굴’이란 말과 많이 쓰였다(시 13:2; 22:25; 27:9; 30; 44:25; 69:18; 88:15; 102:3; 104:29; 143:7). 하나님의 얼굴 혹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숨겨졌다는 말은 대개 하나님과 백성간의 교제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나의 길이 숨겨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고달픈 인생의 길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모르고 계신다는 뜻이다(28). 사실 이스라엘은 아웨께서 자신과 특별한 관계속에서 그들의 고난을 격려해 주길 기대하고 바랬지만 상태가 호전될 전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불만을 하고 있다.

대칭으로 강조된 “나의 의”(מִשְׁפָּטִי)는 판결에 대한 불만을 반영하는 것같이 들린다. 이것은 어떤 인간 재판관이 아니라 공의로운 재판관인 하나님

17. E.J. Young, *The Book of Isaiah III*,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1977, pp. 64.

18. W.A.M. Beuken, *Jesaja II*, De prediking van het Oude Testament, Nijkerk: Callenbach, 1979, p. 52.

19. W. Grimm/K. Dittert, *Deuteriojesaja*, Stuttgart: Calwer Verlag, 1990, p. 79.

을 향한 원망이다. 이스라엘은 지금 억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יְהוָה**는 압제자에 대해 판결을 바르게 해달라는 탄원이다(cf. 49:4; 출 23:6).²⁰ 그들은 심판자인 야웨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줄 것을 기대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비껴갔다고 불평한다. **מִן עֲבַר**는 여기서 “더 이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란 뜻이다. 이 경우 **עֲבַר**(건너가다)는 **כָּסַח**(감추다, 신 26:13)의 동의어다.²¹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신음하는 자기 백성의 호소를 듣지 않으시고 그 송사건을 해결해 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불평은 정당해 보인다. 동사 **תָּאמַר**와 **רָבַרְבַּר**는 미완료로서 계속이나 반복을 의미한다. 이사야의 환상 가운데서 이 탄식은 포로 공동체의 제의에서 사용되었을지도 모른다(cf. 시 44:25). 이 탄식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서 돌이켜 숨어계신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 불평은 하나님을 직접 말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사야가 볼 때 그런 이스라엘의 탄식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백성의 생각은 바꿨으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백성에 대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다.

2. 반박(28-31)

1) 반박의 근거: 야웨는 누구신가? (28-29)

“너는 모르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야웨는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을 창조하신 분, 그 분은 피곤치 아니하며, 지치지 아니하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것을”(28절). 반박은 분리 의문 불변화사(**מַה...אֵין**)를 사용한 수사 의문문으로 시작하는데 그 대답은 물론 강한 긍정이다. 구약에서 ‘알다’란 말은 어떤 일이나 인간적인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 것이다.²² 여기서 **עָדָה**의 의미는 **עָמַד**와 같은데 구조상 27절의 **אָמַר**와 **רָבַרְבַּר**같이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것이

다. 포로들은 분명히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듣고 알았을 것이지만 다시 이것을 배워야 했다. 야웨는 영원하신 하나님(**אֱלֹהִים עוֹלָם**)이시다. **אֱלֹהִים עוֹלָם**은 두 명사를 연계형을 사용하여 표시한 일반적인 히브리어 관용어다. 형용사가 발달되지 않은 히브리어에서 자주 명사를 연계형으로 접속시켜 형용사 기능을 대신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번역으로 ‘영원의 하나님’(창 21:33)이나 ‘영원하신 하나님’이나 의미상 차이가 없다. 여기서 영원이란 시간을 초월한다는 형이상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가장 먼 과거로부터 가장 먼 미래까지 전 역사를 포괄하는 시간 개념이다. 그것은 야웨께서 일하시는 역사와 더불어 채워지는 시간이다.²³ 본문에서 이것을 언급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속성을 따라 스스로 영원하신 것과 같이 그 백성을 영원히 돌보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더 나아가서 야웨를 땅끝을 창조하신 분으로 제시한다. 땅끝(**אֶרֶץ קְצוֹת**)이란 땅의 가장자리를 말하는데, 과학적 사고에 익숙한 현대인에게는 이상하게 들린다. 그러나 이것은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계관을 반영한 일상용어로 계시가 주어진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것은 땅끝과 그 언저리가 싸고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킨다. 특히 이 말은 신학적으로 땅의 중심이 되는 시온에서 멀리 떨어져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던 바벨론까지의 거리를 의미한다(41:9; 43:6). ‘창조하다’(**בָּרָא**)란 동사는 구약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적용되었다. 야웨는 땅의 창조주인데, 그 땅은 바벨론도 포함한다(cf. 26절). “야웨의 능력이 천체를 주관하는데 나타나듯이(26절), 땅과 땅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치하는데 그 능력이 적용된다.”²⁴ 특별히 이스라엘은 야웨가 창조주시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익히 알고 있는 터이지만 바벨론의 창조신화(Enuma Elish)의 본거지에서 이 선포를 듣는 것은 아주 인상적이었을 것이다. ‘피곤하다’(**עָבַד**)와 ‘지치다’(**עָבַד**)란 말은 31절의 마지막 두 문장에서도 나타나듯이 30절과 비교해서 같은 의미로 쓰였다. 물론 학자들에(Delitzsch) 따라서 **עָבַד** 힘을 다 써서 나타난 결과로, **עָבַד**는 음식을 먹지 못해서 힘이 없는 것으로 설

20. F. Delitzsch, *Das Buch Jesaja*, Leipzig: Dörffling & Franke, 1889, p. 42.

21. Koole, op.cit., p. 78.

22. Grimm, op.cit., p. 79.

23. K. Elliger, *Deuteriosaja I*, Biblischer Kommentar Altes Testament, Neukirchen: Neukirchener Verlag, 1978, p. 98.

24. Koole, op.cit., p. 79.

명하기도 하는데 50:4의 **קָוָה**는 음식을 못 먹어서 나타나는 결과와는 아무 상관도 없고 무엇인가 결핍된 것과 관계가 있다. 야웨는 세상에서 그리고 시간과 공간으로 짜여진 인간의 역사속에서 일하시지만 피곤치 않으시고 지치지도 않으신다. 그 분은 전능하셔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일에 결코 피곤을 느끼거나 힘을 잃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또한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אֵין מִדָּעָה לַיהוָה**는 측량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통찰력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인간과 같은 피조물의 지능으로써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길은 누구도 확인하거나 추적해 낼 수 없다(cf. 롬 11:33-36).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의 압제 아래 신음하는 동안에 이 사실을 잊어버린 것 같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잘 알아야 했다.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은 창조에 잘 나타나는데(요 1:1; 욥 38:4ff.; 잠 3:18) 특히 창조라는 주제는 바벨론 포로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26; 43:1; 45:7).²⁵ 바벨론은 창조신화 Enuma Elish의 본거지가 되는 곳이다. 그러나 야웨는 바벨론에 있는 이방신들과는 완전히 다르다. 창조주가 바벨론의 만신전의 최고신인 마르дук이 아니라 야웨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없는 위로가 된다. 하나님의 창조는 믿음의 근본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고백은 하나님이 땅끝까지 창조하셨다는 믿음으로 시작한다.

“그 분은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힘없는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자라”(29절). 인간은 연약하지만 야웨는 전능하시다. 인간과는 달리 하나님은 피곤치도 지치지도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은혜는 연약한 인간과 크신 하나님 간의 간격을 잇는 교량 역할을 한다. 끝없는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힘(**קָוָה**)이 피곤한 자(**אֵין מִדָּעָה**)에게 그리고 능력(**קָוָה**)이 힘없는 자(**אֵין מִדָּעָה**)에게 부여된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분의 능력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섬김에서

도 나타난다.²⁶ **קָוָה**(**קָוָה**, vital power)와 **קָוָה**(**קָוָה** 부요함으로 강화된다는 뜻)²⁷ 거의 같은 개념으로 쓰였다. ‘주다’(**קָוָה**)와 ‘더하다’(**קָוָה**)도 마찬가지로 쌍을 이루는 말의 마지막 단어는 강조된다. ‘피곤한 자’와 ‘힘없는 자’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가 있다. 물론 일반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은 모든 피곤한 자들에게 활력을 주시지만 여기서 이 말은 특별히 바벨론에서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그 백성을 위한 것이다. **קָוָה**이 분사형(**קָוָה**)으로 쓰인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도움이 간헐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이한 속성으로 항상 주어지는 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피곤한 자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활력을 제공받는다.²⁸ 이스라엘은 ‘내 길은 야웨께로부터 숨겨졌으며 내 의는 내 하나님을 비껴가는고’라고 탄식하기 전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능력으로 그 백성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다.

2) 절정: 야웨를 바라는 자 (30-31)

“청년도 피곤하여 지치며, 장정이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야웨를 바라는 자들은 힘을 새롭게 하리라 그들은 독수리와 같이 날개로 올라갈 것이다. 그들은 달려가도, 지치지 않을 것이요 그들은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30-31). 이 부분은 하나의 역리를 보여준다. 즉 힘없는 자가 기적과 같이 힘을 얻고, 강한 장정이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 그렇다.

30절에 언급된 사람들은 28에서 묘사한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이다. **קָוָה**는 상대적인 표현인데 여기서는 문맥상으로 보아 미성년자나 성장단계에 있는 ‘아이’를 뜻하는 ‘소년’이라는 말보다는 힘있는 청년기의 사람으로 보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אֵין מִדָּעָה**은 ‘선택하다’(**קָוָה**)란 말에서 온 ‘선택받은 자들’이란 뜻으로 단순한 젊은이가 아니라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선출된 사람

25. Zimmerli, *Grundriss der alttestamentlich Theologie*, Fünfte Auflage, Stuttgart, Berlin, Köln, Mainz: W. Kohlhammer, 1985, pp. 30, 194f.

26. Cf. Barry G. Webb, *The Message of Isaiah*, Leicester: IVP, 1996, p. 165.

27. H. Ringgren, **קָוָה** in: *Theologisches Wörterbuch zum Alten Testament* IV, 1984, p. 130; N. Lohfink, **קָוָה** in: VI, 1989, p. 317; A.S. van der Woude, **קָוָה** in Jenni, E. und C. Westermann (ed.), *Theologische Handwörterbuch zum Alten Testament* I, München: Chr. Kaiser, p. 823.

28. Whybray, p. 59; Grimm, op.cit., p. 81.

을 가리키는데 주로 군사적 의미를 지니는 말로서 장정을 뜻한다(cf. 삼하 6:1).²⁹⁾ ‘청년’ (עַרְוָה)과 ‘장정’ (עַרְוָה)도 생애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다. 그들의 능력은 운동선수나 군인들과 관련된 것이다. 잠언의 지혜자는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라고 했다(잠 20:29). 이 표현은 특히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은 인간적인 힘의 상징을 의미한다. 그런 자도 피곤을 느끼고(עָבַד)는 원래 עָבַד는 인데 불완전 철자법으로 쓰였다³⁰⁾, 반드시 넘어진다. 이 번역은 כָּשַׁל (넘어지다)이 כָּשַׁלָּה כָּשַׁלָּה로 부정사 독립형의 유음중첩법적 용법(paronomastic usage)으로 강조되어 쓰인데 근거를 두고 있다. 인간의 힘이 아무리 세다고 해도 극히 제한되어 있음을 뜻한다. 그 힘이란 항상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31절은 영적인 영역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이 절의 접속사 וְ는 문맥상 역접으로 번역할 수밖에 없다.³¹⁾ וְ וְ וְ는 반대 의미를 가진 문장의 요소로서 속격관계로 대치되었다(וְ וְ는 וְ וְ의 분사형).³²⁾ 앞절에서와는 달리 인간의 신체에 일어난 현상이 여기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바라다’(בָּרָא)는 말은 막연한 미래를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 말은 믿음이나 신뢰와 같은 것으로(시 37:3, 5, 37)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의미한다.³³⁾ 여기서 ‘야웨를 바라는 자’란 하나님을 인내하며 바라면서 그분의 구원의 능력을 믿고, 확실하게 그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자들이다. ‘야웨를 바라다’는 말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탈출구로 자주 쓰였다(시 25:3; 27:14; 33:20; 39:8; לָמַד 42:6, 12 등). 그러나 인간적인 바램은 무의미하다(59:9ff.; 렘 13:16).³⁴⁾ 참다운 바램이란 이스라엘의 소망 자체가신 하나님과 갖는 영적인 유대를 의미한다(렘 14:8; 17:13). 이 절에서 주어로 쓰인 분사 복수형은 ‘청년’과 ‘장정’을 복수로 쓴 것을 대비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 עָבַד의 히필형은 ‘바꾸다’, ‘대치하다’, ‘새롭게 하다’란 뜻이다(41:1; 욥 29:20). 야웨를 바라는 자는 힘을 새롭게 얻을 것이다. 이 새 힘은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 필요한 것이다(미완료의 의미).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일종의 약속인데, 그것은 은유법으로 표현되었다. עָבַד를 칼형으로 볼 것인지 히필형으로 볼 것인지는 복잡한 문제로 남아 있다.³⁵⁾ 만일 칼형으로 본다면 רָכַס은 부사적 대격이 대격이 되어, ‘그들이 독수리와 같이 날개로 올라갈 것이다’로 번역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רָכַס 앞에 비교를 나타내는 불변화사가 와야 한다고 주장한다(Koole). 그러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은 부사적 대격 자체는 전치사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³⁶⁾ 만약 이 동사를 히필로 보면 רָכַס은 목적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즉 ‘그들이 날개를 자라게 할 것이다’로 번역된다(LXX, Vulg, Pesh 역). 이 번역은 ‘새 힘’과 ‘새 날개’라는 성장 개념에 근거한 것이다. ‘날개가 나온다’는 개념을 가지고 이 구절에서 ‘독수리’란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기란 어려워 보인다. 독수리는 힘을 상징한다. 독수리로 번역된 רָכַס에 대해서 Feliks는 “히브리 문학에서 רָכַס가 여러 유럽 제국의 상징으로 대표되는 독수리나 맹금과 일치한다”고 했다.³⁷⁾ 독수리는 날짐승 가운데 왕으로 통하고, 힘과 승리를 의미한다. 젊은이가 피곤하고 지쳐서 넘어지는 것(30절)과 같은 방식으로 새힘을 얻은 결과로 독수리와 같이 올라가게 된다. 본문의 עָבַד는 구조와 내용을 보아서 칼형으로 분해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이 표현을 עָבַד의 히필형으로 보기 위해서 시 103:5과 연결시키는 이도 있으나 그 시편 본문의 רָכַס는 능력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독수리의 다른 특성과 관련되는데, 그것은 독수리가 털같이하는 것을 연상케 한다. 야웨를 바라는 자는 독수리가 힘찬 날개로, 공중을 빠르고 높이 나는 것과 같이 올라갈 것이다. 마지막 두 문장에서 젊은이와 강한 대조를 이루어 ‘피곤한’과 ‘지친’이 다시 언급되었다. 동사 ‘달리다’(רָכַס)와 ‘걸다’(רָכַס)도 추상적인 의미로 쓰였다. 그들은 달려가도 지치지 않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

29. Cf. Alec Motyer, *The Prophecy of Isaiah*, Leicester: IVP, 1993, p. 308.

30. E. Kautzsch (ed. and enlarge), *Gesenius' Hebrew Grammar*, Second English Edition by A.E. Cowley, Oxford: Clarendon Press, 1990, § 69, q.

31. F.E. König, *Historisch-kritisches Lehrgebäude der hebräischen Sprache* Band III, Hildesheim: Georg Olms Verlag, 1979, § 360, b.

32. Ibid., § 336, m.

33. Cf. Peter, D. Miscall, *Isaiah*, Sheffield: JSOT Press, 1993, p. 101.

34. Koole, op.cit., p. 81.

35.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Elliger (p. 101); Beuken (p. 55); Koole (pp. 81f.)를 참조하라.

36. Cf. L.P. Lettinga, *Hulpboek bij de grammatica van het Bijbelse hebreuws*, Leiden: Brill, 1976, § 74, g.

37. J. Feliks, *The Animal world of the Bible*, Tel-Aviv: "Sinai", 1962, p. 68.

다. 이것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행로에서 겪어야 하는 궁핍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그들은 쇠하지 않는 능력으로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며 극복할 수 있었다. 27절의 물음에 대한 답변은 이 약속으로 끝맺는다.

IV. 결론

내용상 독자적인 한 단위를 형성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제시된 논쟁(12-31)의 절정을 이루는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논쟁의 발단이 된 불평을 볼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참다운 지식을 잃어버렸으며, 바벨론 포로생활과 급변하는 주변의 세계정세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신앙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의 불평은 정당하지 않다.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야웨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는 것을 믿고 아는 지식을 말한다. 동시에 그 분은 백성의 고통을 돌아보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지식이 결여될 때 인간은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 영원이라는 속성과 함께 야웨는 처음부터 자기 백성과 맺은 관계속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이다. 그 분은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하셔서 그 백성 가운데서 일하신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그 백성을 향한 그분의 약속은 결국 성취될 것이다.

일상생활에서도 이스라엘은 야웨를 의지한 결과로 날마다 새힘을 공급 받고, 당면한 고난을 인내하며 극복할 수 있다. 즉 야웨를 바라는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독수리가 그 날개로 올라가듯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으므로 제국의 판도가 바뀌는 와중에서도 이스라엘은 바벨론 바깥의 정치적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이 본문의 약속은 구속의 연장선에서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적용된다. 범죄한 백성까지도 위로하고 다윗 왕국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실 신실하신 하나님

님은 그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길로 행하도록 그리스도인에게도 위로와 소망과 능력을 주신다. 그리스도인이 비록 그 길에서 자주 피곤을 느끼고 지치기는 하지만 같은 약속을 보장받을 때 위로를 얻는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시대 기독교인의 구원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란 사람들의 불평은 근거가 없다.³⁸⁾ □

38. Cf. M.J.C. Blok, Bemoediging voor een wanhopig volk, *De Reformatie*, jg. 63, 1988, pp. 625f., 645f. 664f.